

KIA 스타들 “고교생들 보면 초심 다졌다”

김선빈·황대인·김석환·한준수
동성고 전 훈련지 고흥서 시즌 준비
후배들에 포지션별 기술 전수
실외 타격·체력 훈련·축구대결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
·황대인·김석환·한준수가
동성고 전지훈련지에서
'초심'을 다졌다.

광주 동성고 야구부는
고흥 거금야구장에 동계
캠프를 차리고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추
어 선수들의 열정이 넘치는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
이 찾았다.

동성고를 졸업한 외야수 김석환, 포수 한준수가
동문인 두산 나야수 지강혁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
로 후배들의 전지훈련지를 찾았다. 이들과 겨울 훈
련을 함께했던 화순과 출신의 나야수 김선빈, 경기
고를 졸업한 나야수 황대인도 동행해 새 시즌을 준
비했다.

지난 16일 고흥을 찾은 이들은 동성고 선수들과 기
술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겸한 축구 대결도 했다.

동성고 선수들에게는 프로 선배들의 훈련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였다. 정교하게 또 파워 넘치게
공을 때려내는 프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며 감탄하던 선수들은 직접 노하우를 배울
기회도 얻었다.

마침 포수, 내야수, 외야수를 맡고 있는 KIA 선
수들은 포지션별로 특별 코치로 나서 동성고 선수
들에게 수비 기본기도 알려줬다.

프로의 기술을 배운 후배들, 프로 선배들에게도
배움의 시간이 됐다. 이들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열
정적인 모습과 간절함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즌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맏형’으로 동성고의 특별 손님이 된 김선빈은 배
팅볼 투수를 자처해 후배들을 응원하고, 올 시즌 준
비에도 속도를 냈다.

김선빈은 “같이 시즌 준비했던 KIA 후배들하고
스프링캠프에 앞서 훈련을 하기 위해 고흥을 찾았
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했다”며 “오랜만에
다시 실외에서 타격하니까 좋았다. 올 시즌을 앞두
고 식단 관리도 하고 준비를 잘했다. 건강하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황대인에게도
'처음'의 마음과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
간이 됐다.

황대인은 “활기가 넘친다. 확실히 다르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다시 예전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밖에서 훈련하면서 평고도 받고, 방망
이도 하니까 실전 준비가 된 것 같다”며 “지난해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후회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고 있다”고 2026
시즌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

올해로 프로 10년 차 된 김석환은 “시즌 준비
하려고 고흥을 찾았다. 밖에서 따듯하게 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실외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감독님, 코치님들이 잘챙겨주신다. 단체로 모여
서 운동하면 시즌 준비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며 “동성고 후배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후
배들도 잘되면 좋겠고, 나도 잘해서 후배들 챙겨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사령탑이었던 김재덕 감독과 함께
김동휘 코치는 서석초 시절부터 김석환을 지도한
오랜 인연이다.

한준수는 “후배들도 있고 선辈들이 형이랑 선배들
도 함께 훈련하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내에서 훈련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게 다르다. 밖
에서 실전처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찾았는
데 좋았다”며 “캠프에서 잘 준비해서 2025년도에
못 보여드렸던 것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두산 지강혁도 “형들과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 또 선배들이 잘해야 후배들이 보고 배
울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다”며 KIA 선수
들과 함께한 동성고 캠프 성과를 이야기했다.

/고흥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선빈(오른쪽)과 한준수가 고흥 거금야구장에서 동성고 선수들에게 배팅볼을 던져주고 있다.

(동성고 김동휘 코치 제공)



광주 동성고의 동계 캠프가 꾸려진 고흥 거금야구장에서 KIA 황대인(왼쪽부터), 한준수, 김선빈, 김석환
그리고 두산 지강혁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승격” 전남, 첫 승 제물은 경남

2월 28일 K리그2 시즌 개막
17개 팀, 272경기 승격 경쟁
박동혁호, 3월 1일 원정 경기

전남드래곤즈가 경남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승격 도전을 시작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6시즌 K리그2 정규라
운드 1~34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김해, 용인, 파
주가 새로 가세하면서 올 시즌 17개 팀으로 K리그
2가 운영된다.

홀수팀 체제에 따라 ‘휴식일’ 일 생기면서 각 팀은
32경기씩 총 272경기를 소화한다.

K리그2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은 2월 28일 오후
2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해와 안산의 경
기다. 지난해 K3리그 '우승팀' 김해는 안산을 상대
로 프로 무대 도전을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새 사령탑 이정호 감독을 앞세운 수원이 서울이랜
드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해 승격 문턱에서 눈물을 삼켰던 수원은 ‘이
정호호’로 K리그1 재진입을 노린다. 서울이랜드의
김도균 감독은 난적을 상대로 3번째 시즌을 연다.

이어 3월 1일 오후 2시 용인과 천안이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시즌 첫승을 놓고 대결한다.

K리그2에 도전장을 내민 용인은 최윤겸 감독의
지휘 아래 신진호, 임재민, 석현준 등을 영입하면서
탄탄한 스쿼드를 갖췄다. 박진섭 감독으로 개편한
천안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K리그1 최하위로 강등 운명을 맞은 대구는 여전
히 팀을 지키고 있는 세징야와 에드거를 앞세워 승
격을 노린다.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은 신생팀
돌풍을 이어 더 높은 순위를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퀸타 신
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
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
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